

<특별기고>

N세대 새로운 행동 패라다임 연구의 방향: ‘발달 심리학’에서 ‘자아 형성학’으로

조한해정*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문화 인류학

“40대는 가장 불행한 세대이다. 봉건적 부모 아래서 어쭙잡은 미국식 자유주의 교육을 받다가 군사 독재 유신체제에서 학교를 다녔다. 386세대처럼 대학 때 데모를 하면서 자기들 나름의 정체성을 만들어본 것도 아니고 선배 세대처럼 경제성장 와중에 마음껏 뻗어 나가본 적도 없다. IMF때 가장 힘들었던 사람도 우리 세대였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벤처니 뭐니 하면서 온통 20대 세상이고, 그들은 우리를 이해할 생각은 하지 않고, 우리보고 이해해 달라고만 한다.” - 한 통신업계 사장의 말

는 드물 것이다. 지난 두어 세기에 걸쳐 형성된 산업사회는 이제 ‘정보혁명기’를 거쳐 본격적인 정보사회로 돌입하고 있다.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과도기적 상황을 살아가고 있으며, 사실상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세대의 출현을 불안스럽게 바라보는 기성세대는 이들에게 ‘N 세대’라는 별명을 붙이고, 정보사회의 ‘온전한 자식’이라 할 그들을 이해하고, 또 그들을 이해함으로 새롭게 도래하는 사회의 성격을 파악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1. 들어가는 말: 전환기에 대한 인식

지금 이 패라다임 전환기라는 점을 부정하는 이

지금까지 우리가 익숙하게 알아온 사회 체제는 급격하게 해체되고, 지금의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전혀 새로운 사회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다. 학자들은 이러한 시대적 전환을 ‘탈산업화’ ‘후기 자본주의’ 내지 ‘탈 근대’라는 단어로 집약해왔다. 특히 최근 인터넷으로 인해 그 변화는 새

* haejoang@chrurnet.com

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앨빈 토플러는 이러한 변화를 『제 3의 물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몇 십 년 안에 새 물결이 올 것이다. 그 물결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살아가는 방식, 심지어는 투쟁하는 방식까지 모두 바꿀 것이다.” 인터넷계의 대부라 할 수 있는 빌 게이츠 역시 자신의 저서 『생각의 속도』 중에서 비슷한 말을 했다. “다가올 10년의 변화는 지난 50년의 변화보다 더 클 것이다...디지털 시대에 ‘연결성’이라는 말은 단순히 들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인터넷은 정보 공유와 협동, 그리고 상거래를 위한 전 인류의 새로운 공간이다. 또한 TV나 전화 같은 우리 생활에 밀접한 기술의 즉시성과 자연성, 즉 아무 때나 즉각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또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점을 취하고 거기에 서신 왕래 고유의 깊이와 넓이를 더한 새로운 매개체이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은 정보를 찾아주고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완전히 새로운 능력도 지니고 있다.”

물론 현재 일고 있는 이 문명사적인 전환은 실은 서구에서 시작해서 지난 3~4세기에 걸쳐 일었던 변화의 결정점이다. 그 변화는 간단히 요약하면 첫째 콜롬부스가 지리상의 발견을 향해 떠난 것을 기점으로 전지구적 자본주의 시장이 확대한 것, 둘째 프랑스에서 일어난 정치적 혁명을 기점으로 민족 국가 nation state 중심의 정치 공동체가 형성된 것, 셋째 영국의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의 전지구화 차원에서 일었던 변화이다. 현재의 인터넷 혁명은 이러한 세 차원에서 일고 있는 변화들을 연결, 통합시켜 ‘근대 기획’을 결정적으로 완성시키면서 전혀 새로운 후기 근대적 문명의 단계를 열어가고 있는 중이다. N 세대의 행동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난 2~3세기에 걸친 ‘근대화 과정’에 대한 이해와 앞으로 오고 있는 사회의 성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20세기 후반에 일기 시작한 디지털 정보기술의

혁명도 인류사회를 근원적으로 바꾸어내고 있다. 21세기의 디지털 시대 ‘인간’들은 20세기 아날로그 시대의 인간과는 질적으로 다른 모습으로 그 자신을 형성해가고 있다. 따라서 아날로그 시대에 만들어진 개념으로 디지털시대에 만들어진 ‘인간’을 파악하려는 단일한 시도는 더 이상 생산적일 수 없다. 디지털 시대의 인간을 파악해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개념에 의존하는 실험실의 연구 이전에, 아주 새로운 시대 인식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동시에 연구자 자신이 가진 아날로그적 사고 방식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날로그적 전제를 가진 사람이 디지털 시대를 제대로 연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지난 2~3세기에 걸쳐 전지구적으로 일어난 근대화 과정을 살펴본 후, 식민지적이고 파행적인 근대화 과정을 거친 한국사회의 특성을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디지털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아날로그 세대와 디지털 세대의 간격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 지에 대해 생각해볼 것이다. 끝장에서는 디지털 시대를 제대로 연구하기 위해서 한국사회의 심리학계는 어떤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이루어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려 한다.

2. 시대 인식:

변화하는 ‘인간’과 ‘역사’에 대한 전제

현재의 정보혁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또한 분리된 다음 세 분야에 걸친 근대화 과정의 결산이라고 할 수 있다.

- 1) 소품종 대량생산체제에서 다품종 대량생산체제로의 이행,
- 2) 생산위주 사회에서 소비위주 사회로의 이행,
- 3) 복합적이고 불확실한 ‘위험 사회’로의 이행.

이런 전기 근대에서 후기 근대로 이행하는 변화는 ‘인간’과 ‘역사’에 관한 전제를 근원적으로 뒤

바꾸어놓고 있다. 여기서 대량생산 체제의 전형적인 '인간'을 그려보자. 그는 콘베이어 벨트로 상징화된 대량생산 체제에 맞게 길들여진 인간이다. 공장이나 관료체제에서 요구하는 일을 잘 할 수 있기 위해서 그는 일찍부터 훈련을 받는다. 그들에게 요구되는 일은 비슷하므로 모두가 같은 내용·식의 교육을 일정기간 받으면서 대기업으로 대표되는 기성 조직의 일원이 되기 위해 참고 인내하는 '준비'를 거친다. 획일적인 '학교' 체제, 졸업장과 자격증제도가 그런 체제를 상징하는 것이다. 사회 구성원들 간의 차이는 오로지 우열관계에 의해 가려진다. 일류대학이 그래서 중요하며, 박사학위를 따기 위해 모두가 그렇게 욕망하게 되는 것이다. 졸업장과 자격증에 따라 이들은 평생고용이 보장된 회사에 들어가서 대부분이 그곳에서 일생을 보내게 된다. 이 시대는 소수의 창의력이고 선각자적인 엘리트들이 만들어낸 소수의 품목이 대량으로 생산되고 전파되는 시대이다. 지식의 측면에서 보면 소수가 다수를 제몽하는 시대이다.

다품종 소량생산체제, 곧 맞춤 주문 생산시대로 가면 이 체제는 깨지고 만다. 대단한 오리지널을 낼 필요는 없지만 - 실은 기술복제기술이 고도화된 후기 근대에 가면 더 이상 '오리지널은 없다.'는 슬로건이 생긴다. - 나름대로 오리지널에 수정작업을 하는 창의적 과정이 첨가되면서 다수의 사람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자발적이며 창의적일 것을 요구받는다. "똑같되 남보다 잘하는 것"이 대량생산체제에 살아남는 길이었다면 "남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 다품종 소량생산체제의 생존전략이다.

이 과정은 생산주의 사회에서 소비주의 사회로의 이행과 함께 이루어진다. 사회가 경제적으로 풍부해진다는 것은 소비가 늘어난다는 말이다. 경제 성장이 어느 단계에 들어서면 더 이상 생산이 아닌 소비가 미덕이 된다. 소비시대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신세대와 구세대 간에 갈등이 첨예해진

다. 소비 사회 단계에 오면 잘 소비하는 것이 중요하고, 소비를 통해 자신의 취향을 개발해가고 그를 바탕으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측면을 이해하지 못하는 구세대 (생산주의 세대)는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소비에 신경을 쓰는 '자녀'가 비생산적이고 비도덕적인 사람으로 자랄 것을 염려하게 되는 것이다.

소비사회, 광고사회, 고부가가치 상품사회, 서비스 시대에서는 생산만을 위해 허리를 졸라매는 태도는 금물이다. 소비 사회는 '튀어야 사는' 시대이다. 개성과 자기 표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파티에서 자기를 잘 드러내는 사람은 파티 기획자가 될 수도 있고, 패션 모델이 될 수도 있고, 손님이 줄을 잇는 옷가게의 '보통 카리스마' 점원이 되어 많은 돈을 벌면서 즐겁게 살 수도 있다.¹⁾ 잘 소비하는 경험이 곧 훌륭한 생산자가 될 수 있는 소비자 (prosumer)의 원리가 새로운 시대원리로 등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비사회의 시각에서 본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있는 것이 생산주의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한심한 행위가 된다.

이러한 후기 근대적 상황은 사실상 개인에게는 엄청난 불안을 안겨주는 사회이다. 후기 근대적 과도기에 들어서면 변화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안정적 상태는 크게 흔들린다. 이 시대의 지성인인 갈브레이스는 후기 근대 사회를 '불확실성의 사회'라고 표현하였고, 울리히 벡은 무모한 모험이 체계적으로 재생산되는 운전자 없이 달리는 차와 같은 현대사회를 '위험사회'라고 부르고 있다. 과학기술 체계는 이제 그 자체로 하나의 속도를 가진 체제로 굴러가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엄청난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1) '보통 카리스마'란 일본에서 유행하는 단어인데, 개성과 매력으로 많은 손님을 끄는 옷가게 점원이 선망하는 직종이 되면서 생긴 용어이다. 대단한 위인의 시대가 아니라 나름대로 개성과 자기 스타일을 가지는 것이 중요해진 시대 변화를 잘 드러내는 현상이다.

대량 생산체제적인 안정적 고용 상태가 깨지면서 많은 사람들은 불안정 고용의 시대에 적응해야 한다.²⁾

복합성과 불확실성이 증대하는 상황에서 개인들은 극도의 불안감과 고립감 외로움 속에서 파편화 되어간다. 경제기술체제가 과도하게 생활세계를 지배하게 되면서 경험을 공유하는 공동체를 만들 시간은 더욱 줄어들고, 사회구성원들은 심한 생존의 위기와 실존의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하버마스는 이런 상황을 '정당성의 위기' 시대를 지나 '동기상의 위기' 상황으로 돌입하였다고 표현한 바 있다. 이런 상황은 전혀 새로운 역사관과 인간관을 출현시킨다.

이러한 일련의 근대화 과정 끝머리에서 일고 있는 본격적인 디지털 혁명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 온 개념과 범주들을 급격하게 무효화시켜 버리고 있다. 대량생산체제에 맞게 진화된 기존의 공동체, 곧 국민국가, 가족, 공장, 학교 등의 안정적인 공동체가 급격히 붕괴하고 있으며, 생산적인 인간, 미래를 위해 긴 준비 기간을 거치는 '근대적 인간'을 찾아보기 힘들어지고 있다. 인간의 심리를 고정된 어떤 것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불확정적이며 유동적이고, 심리를 발달이라는 개념과 연결시키는 시대는 지났다. 지금 시대에 '발달' development 이라거나 '인간중심주의' humanism이라는 등의 개념은 구시대의 유물이며, 때론 '사악한' 개념으로 간주되고 있다. 인간을 중심에 놓음으로 지구상의 많은 생물과 생태계를 무시해온 근대적 체계, 진보와 '발전'의 신화에 도취해서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시키면서 실은 일상의 삶 자체와 관계 자체를 극도로 피폐한 상태에 내버려둔 근대사관에 대한 근원적인 해체가 시작되고 있다. 이는 '인간'의 '성장'을 바라보는 기본적 전제의 변화를 요구

한다. 후기 근대의 인간은 직선적 과정을 따라 '발달'하는 존재가 아니다. '발달 심리'를 다루는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연구자들은 이제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라는 소설가의 질문에 답할 준비를 해야 한다. 변신의 시대에 복합적 정체성을 형성해가고 있는 N세대를 연구할 준비를 우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혹시 우리는 검은 연기를 뿜으며 달리는 기차를 보면서 놀라고 탄식하는 조선 시대말 선비는 아닌가 자문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3. 식민지적 압축 고도 성장을 한 한국사회의 세대론

연구는 연구자와 연구대상자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다. 지금과 같은 급격한 변화 과정에서 세대간의 경험의 차이는 엄청나서 거의 소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다. 식민지적 근대화와 압축적 경제성장 과정을 거친 한국사회는 세대 단절과 의사불통 상황이 극한에 이른 경우중 하나이다. 살인적 속도에 의해 다수의 구성원들이 부적응 상황에 놓여있으며, 극단적인 세대 단절이 그 양상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렇다면 30대 또는 40대 연구자가 10대 N세대를 연구하는 것은 쉬운 일일까? 삶을 바라보는 전제가 다른 이들을 연구하기 위한 방법론은 어떤 것일까? 문화인류학은 초기부터 전제가 다른 대상을 연구해온 학문이다. 이 학문에서 강조해온 것은 문화적 상대주의와 참여관찰이다. 문화적 상대주의는 기존의 자신의 안경을 고집하기보다 타인의 입장에서 타인의 안경을 써보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참여관찰은 기존의 이론에 기대기 보다 현장연구를 통한 '발견'을 강조한다. 연구자는 자신이 가진 전제를 접어두고 장기간의 참여관찰을 통해 새롭게 알게된 현실과 관점으로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과도기는 모두가 독창적인 이론가가 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2)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월말 현재 근로자 1,280여만명 가운데 1년 미만의 고용계약을 맺은 비정규직이 절반을 넘어 670만명에 달했다.

여기서 잠깐 N세대 연구를 위해 내가 재구성해 본 한국사회 세대론을 제시해보려 한다. 세대간의 차이를 통해 의사소통의 실마리를 찾아보려는 것이다. 나는 지금의 세대를 크게 세 범주로 나누어 보았다. 30대 이상의 세대를 생산주의 세대, 20대를 소비사회로의 이행이 만들어낸 X세대, 그리고 10대를 PC 통신과 게임과 인터넷의 대중화가 만들어낸 N세대로 명명해보자. 이젠 지금 맥스컴이나 일반인들이 즐겨해 온 범주화이기도 하다. 나는 학문은 대중적인 담론과 괴리되어서는 안 되며, 지금과 같이 급격한 변화가 일고 있는 경우에는 특히 밀착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차적으로 지금의 30~40대는 뛰니뛰니 해도 생산을 덕목으로 삼고 자라온 세대이다. 그리고 역사는 진보한다고 믿으면서 허리를 졸라매고 미래를 준비하면서 살아온 세대이다. 소비사회로의 이행을 사회구성원들이 피부로 느끼면서 여론화가 시작된 것은 90년대 이후이다. 청소년들이 나이키 브랜드를 사고 싶어서 절도행위를 했다는 기사나 '압구정동 오렌지족'에 대한 논의들은 소비사회로의 이행이 본격적으로 일어났음을 드러내는 사건이다. 1970년대에 태어난 90학번들의 다수는 중·고등학교 때 브랜드 있는 상품을 갖고자 열망했으며 음성사서함과 삐삐와 '서태지와 아이들'로 표상되는 새로운 소비와 매니아가 만들어내는 대중문화를 갖게 된다. 이들은 소설이나 신문이 아니라 광고를 통해 시대를 읽고 소비를 통해 자신을 연출하는 욕망을 갖게 되는 세대이다. 이들은 윗 세대가 시키는 것이 다 진실이 아니며, 때론 그들이 하는 말을 듣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스펙타클한 소비대중문화의 성원인 이들은 팬클럽 열성 멤버로 활동하면서 자기 세대만의 '소리 지르기'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간다. 기성세대는 이 이해하기 힘든 세대를 'X세대'라 부르면서 우려스런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나 이 X세대는 윗세대와 통하는 지점이

적지 않다. 이들은 생산이 아니라 소비를 통해서 자신을 만들어갔지만 여전히 확일적이고 표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에게 부모는 여전히 중요한 준거집단이었으며, 이들이 하는 행동은 부모에게 저항하는 것이었지만 늘 부모 세대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정과 반은 실은 매우 닮아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그 다음 세대인 N세대는 좀 많이 다르다. 80년대 이후 태어난 이른바 N세대는 X세대나 30-40대 세대와 아주 다른 삶의 경험을 하면서 자라고 있다. 본격적인 인터넷 인프라가 만들어진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 N세대는 휴대폰과 인터넷 게임과 사이버 채팅과 사이버 서핑에 익숙하다. 더욱이 최근의 벤처붐은 이들을 한번에 더욱 달라진 세상으로 인도하고 있다.

N세대는 더 이상 더 이상 거대한 군중으로 소리는 일을 즐기지 않는다. 거대한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사이버 공간속에서 비밀스런 개인만의 공간을 만들거나 소그룹으로 자기들만의 로컬을 만들고 그곳에서 자기들끼리만 통하는 이미지를 만들어가면서 살아가는 법을 익히고 있다. 이들은 자기들만의 광활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구태여 기성세대에 맞설 필요도 느끼지 않는다. 마음에 들지 않는 학교에 가면 잠을 자다가 밤에 활짝 깨어서 인터넷 세상을 확보하면 되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들을 규정하고 '엠티이려는' 기성세대를 먼저 규정하고 '엠티이면서' 자기들의 공간을 확보하기에 바쁘다. 이들은 위 세대에 비해 훨씬 더 파편화 되어 있고, 익명적이며 자기충족적이다. 이들은 더 이상 합리를 믿지 않으며 의지와 이성의 언어에 기대지 않는다. 성공하려면 오히려 감각과 몸과 이미지의 언어가 필요함을 기성세대보다 더 잘 알고 있다. 이들은 또 더 이상 기다림의 삶을 믿지 않는다. 이들은 10대에 큰 돈을 벌어서 30세에 은퇴해서 한가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일찍부터 알아온 것이며, 그래서 언젠가 '어른'이 되면 꿈을 이루겠다는 식의 동화를 믿지 않는다. N세대는 더 이상 '역사'가 진보

한다고 믿지 않는다. 그들은 파괴되는 지구를 몸으로 느끼고 있고, 기성세대의 문법은 너무나 낙후되어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근대가 역사의 진보를 믿는 직선적인 역사관을 바탕으로 전개되었다면 이제 후기 근대/탈 근대적 시점에서 사람들은 역사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한다. 기다리고 참으면 좋은 세상이 오리라는 믿음은 깨지고 있다. 준비해서 완성될 유토피아는 없고, 참고 준비하는 기간을 거쳐 완성될 '자아'는 없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아차리기 시작한 것이다. 이들은 오히려 그들이 가상공간에서 체험한 세계를 선호한다. 황상민(2000:8)은 "가상 공간에서의 정체성 개념은 고정적이라기보다는 끊임없이 확장되고 변화하며 또 새롭게 창조된다"고 쓰고 있다. 이는 N세대에게는 가상공간에서의 정체성만이 아니라 실제 공간에서도 적용되는 정체성인 것이다.

4. 자아성찰로부터 시작하는 N세대 연구: '발달 심리학'에서 '자아 형성학'으로

나는 위에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 하나는 우리가 근원적인 전환기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자는 것, 두 번째는 N세대 연구를 위해서는 신세대만을 연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세대와의 차이를 알아야 하고, 자기 세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려고 했다. 현실을 직시한다는 것은 자생적 근대화를 거치지 못하고 식민지적 근대화, '식민지적 학문하기'에 젖어온 제 3세계 학자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식민지 봉건적 체제에서 근대적 체제로 막 이동을 해서 겨우 낫을 익힌 순간에 숨을 돌릴 겨를도 없이 다시 그 '근대'를 낫설게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도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³⁾ 그렇다

3) 학문의 탈식민화 문제에 대한 기념비적인 책은 에드

고 샴의 방식과 학문의 방식이 근원적으로 뒤흔들리는 현재 상황을 외면하고 기존의 연구방식을 고집할 수는 없다. 겨우 서양학문의 수준을 따라갈 수 있게 되었는데, 또 다시 행보를 바꾸어야 하는 것은 분명 괴로운 일일 것이다. 그러나 열심히 따라가고 있던 서양 학문은 십여년 전부터 탈근대적 패러다임으로 급격하게 이동을 하고 있으며, 그를 위해 대학에 구조조정의 바람이 일고 있다. 구패러다임을 고수하는 대학의 박사 학위가 무색해지는, 무사 안일한 대학이 '퇴출' 당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다.

근원적 시대 전환기에 한국의 인문사회과학자들은 이제 자신들이 수행한 연구가 얼마나 현실을 제대로 드러내는 것이었는지를 냉철하게 점검해보기 시작해야 한다. 일제시대에 수입된 '식민지적 근대 학문'이 지금까지 큰 패러다임 전환 없이 이어져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그것은 학자들이 쓴 논문의 참고문헌을 보면 아주 분명히 알 수 있다. 학문이란 바로 학문 공동체가 하는 작업일터인데, 한국사회의 현상을 연구하는 연구논문의 참고 문헌의 90%가 영어 문헌이라면 한국사회를 연구하는 주체적인 연구공동체가 있는 것인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자체 내 연구를 바탕으로 한 연구자들의 공동체가 없는 학자공동체는 더 이상 학문공동체라고 보기 힘든 것이다.

N 세대의 연구는 이런 식민지적인 학문하기, 소외된 상태의 학문하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생산적인 연구를 하기 어렵다. N 세대 연구는 바로 자신의 시대 언어를 직시하는 데서부터 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날로그 세대가 디지털 세대를

워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1991.교보문고)이다. 릴라 간디의 「포스트식민주의란 무엇인가?」(1999. 현실문화연구)는 사이드의 논의를 보다 정교화시키고 있다. 줄저 「탈식민지 시대 지식인의 글읽기와 삶읽기 2: 각자 선 자리에서」(1994. 또하나의 문화)는 한국 학문 공동체의 식민지성을 다룬 것이다.

연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자 자신이 가진 한계를 알 때, 다시 말해서 아날로그 세대가 디지털 세대를 연구할 때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들어갈 때 그 연구는 어느 정도 진실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인식이 없을 때 그 연구는 '가짜'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지금 세계는 디지털 혁명으로 인해 근원적인 전환의 과정에 들어섰다. 혁명적 전환기는 새로운 규범과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시기이다. 전환기가 만들어내는 다양성과 불규칙성, 역설과 불일치, 모순을 읽어가면서 새로운 시대 문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 시대적 인식 과정을 생략하면, 연구들은 낙후된 언어를 재생산하게 될 뿐이다. 일차원적인 논의나 선부른 양비론적 규범논의로 빠져드는 논의들이 양산되는 것은 바로 이런 시대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뉴턴과 칸트적인 전제에 바탕을 둔 근대 과학적 지식은 더 이상 일상적 삶을 주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사실은 이제 상식이다.⁴⁾ 후기 근대적 '위험 사회'는 더 이상 논리 정연하게 설명할 수 없는 불확실성과 '탈진보'와 불안의 언어를 만들어내고 있다.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제대로 성과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고, 이성과 의지로 밀어붙이다가는 제 명대로 살기 힘든 카오스적 상황을 피부로 느끼기 시작했다. 그래서 더욱 예전의 전문가체제로 숨어드는 유희도 만만치 않다.

지금 전문가들이 가장 조심해야 하는 행동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면서 계속 전문가적 입장을 고집하며 상대를 대상화하는 일일 것이다. N세대를 이해하려면 현장에 가서 N 세대를 만나야 한다. 그들에게 짜여진 질문서를 들이밀기 전에 대화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대화가 가능하려면 자신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한다. 한국 학자들이 대부분 현지에 가지 않는 이유는 실제로 대상자와 커뮤니케이션을 할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가장 편한 방법, 즉 외국 이론을 읽고 요약해서 논문을 쓰는 일에 몰두하는 경향을 보인다. 지금과 같은 변화무쌍한 상황에서 이런 연구는 도피일 뿐이며, 학자로서의 직무유기이다. 삶이 생성되는 현장에 문화적 상대주의의 안경을 쓰고 들어가서 삶을 제대로 관찰하고 파악해내야 할 때이다.

패러다임 전환기는 기존의 이론을 보충하고 조금씩 보완하는 시대가 아니라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기 위해 현실을 탐색하고 현실을 '발견'하는 시기이다. 더 이상 낙후된 학문체계에 머물러서는 생산적인 연구를 해낼 수 없다. 그 동안 발달 심리학이 인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식체계를 만들어왔다고 믿는다면 지금은 그 지식체계를 현장에 가지고 가서 검증할 때이다. 발달 심리학이 만들어낸 관점과 개념과 방법론은 디지털 시대의 인간을 연구하는 데 여전히 유효한가? 끊임 없이 자신을 새롭게 형성해가기를 요구하는 '평생 교육'의 시대에 얼마나 생산적일 수 있는가?

발달 심리학자들은 이제 한국사회가 가장 사이버 채팅이 활발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⁵⁾ 그리고 최근 신문지상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청부자살'로 번지고 있는 자살 사이트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해석해낼 수 있어야 한다.⁶⁾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 속으로 들어가면서 전혀 새로운 학습과 주체 형성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사

4) 고영만, 2000년. 「인터넷의 독점과 환상」 제 1회 '인터넷이 인간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학술대회, 이화여자 대학교 과학기술대학원과 한국 인터넷 정보센터 주최 5월 19-20일 발표논문 229-236

5) 황상민은 "몰입과 채팅의 심리" (2000. 「인터넷 몰입과 중독: 어떻게 볼 것인가?」 지식문화재단 창립기념 심포지움 논문집 77-91쪽)라는 글에서 N세대 연구의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6) 김희승 "청부자살로 번진 자살 사이트" 2000년 12월 16일자 한겨레 신문 사회면 19쪽.

람'의 '발달'을 연구하는 전혀 새로운 관점과 개념과 방법론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⁷⁾ 거대한 국민국가시대, 대량생산체제를 넘어서 이제 개인 중심의 사회로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량생산체제의 '인간발달'의 틀로 더 이상 다품종 소량생산체제, 디지털시대 아이들을 연구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연구의 관점을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하고, 새롭게 파생되는 수많은 문제들을 제때제때 해결해낼 새로운 개념과 도구들을 만들어내야 한다. 기성 학문 분과의 경계를 넘나들며 학제간 협동작업을 위해 한껏 활동의 장을 확장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국가공동체 단위를 넘어서서 일고 있는 전지구화와 지역화, 일방적 커뮤니케이션을 넘어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일상성과 개인성이 새롭게 연구되어야 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 순환적 역사관과 탈인본주의적 관점이 대두되는 시대, 직접민주주의 네트워크 시대, 생산자와 소비자의 거리가 줄어든 '생비자' prosumer의 시대, 단일한 국민국가 시대를 넘어 '다중적 주체' multiple subjectivity의 시대로 옮겨가는 시점에서, '인간'의 '발달'을 이해하기 위해 '발달 심리학'은 어떤 새 판을 짜야 할 것인가? 발달심리학자들은 이제 적극적 주체 형성, 적극적인 학습의 시대에 대한 연구를 위해 학자 자신들의 자기 성찰과 '업그레이드'를 해낼 준비를 해야 한다.

참고문헌

간디, 릴라 1999. 『포스트식민주의란 무엇인가?』 현실문화연구

고영만, 2000. "인터넷의 독점과 환상" 제 1회 '인터넷이 인간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학술대회, 이화여자 대학교 과학기술대학원과 한국 인터넷 정보센터 주최 5월 19-20일 발표 논문 229-236.

빌 게이츠, 1999. 『생각의 속도: 디지털 신경망 비즈니스』 서울: 청림 출판

올리히 벡, 1999. 『위험사회』 새물결

사이드, 에드워드, 1991. 『오리엔탈리즘』 교보문고.

조(한)혜정, 1994. 『탈식민지 시대 지식인의 글읽기와 삶읽기 2: 각자 선 자리에서』 도서출판 또하나의 문화

1998. "불균형 '발전' 속의 주체 형성: 한국 근대화에 대한 여성주의 비판" 『성찰적 근대성과 페미니즘』 도서출판 또하나의 문화.

2000. 『21세기 학교 만들기: 학교를 찾는 아이, 아이를 찾는 사회』 도서출판 또하나의 문화

황상민, 2000a. "신세대의 자기 표현과 사이버 공간에서의 상호작용" 한국 발달심리학회 춘계 심포지움 발표 논문.

2000b "몰입과 채팅의 심리" 『인터넷 몰입과 중독: 어떻게 볼 것인가?』 지식문화재단 창립기념 심포지움 논문집 77-91쪽

7) 한국사회가 후기 근대로 접어들면서 다시 적극적인 학습의 시대, 새로운 주체의 시대로 들어섬에 대한 글로, 참고 『21세기 학교 만들기: 학교를 찾는 아이, 아이를 찾는 사회』를 참조.